

KB·신한금융, 5년간 110조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첨단산업·지역균형 성장 지원
대출·투자 병행해 자금순환 강화
중소 성장·신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계층·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각각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 금융을 공급한다.

KB금융은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0조원 규모 가운데 생산적 금융으로 93조원, 포용금융으로 17조원을 오는 2030년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과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공급한다.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 등으로 구성한다.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



KB국민은행 본점과 신한은행 본점 전경.

/각사

이다.

KB금융은 투자금융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가딜(MegaDeal·인수합병 등 초대형 거래) 발굴 및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조기 성과창출과 성공적 안착을 지원한다. 추가로 1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투자를 통해 생산적금융(자산운용·증권·인베스트) 펀드 결성,

증권의 모험자본 공급, 계열사 인프라·벤처투자 등을 공급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적극 추진한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복

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17조원은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재기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지원과 채무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산업의 혁신 산업을 높이기 위해 93~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93~98조원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 투자 최대 1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초혁신 경제 성장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에 최대 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 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에 72~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최대 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세밀한 자본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과 민생 전반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순환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금융사도 생산적·포용금융에 나선다. 우리금융 80조원, 하나금융 100조원, NH농협금융 108조원 투입을 결정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조좌진의 결단’ 롯데카드, 인사·조직 전부 갈아엎는다

〈롯데카드 대표〉

정보유출 후 본부장 절반 교체
‘정보보호센터’ 대표 직속 격상

롯데카드가 최근 정보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다. 본부장 절반 이상을 교체한 데 이어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며 내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7개 본부 가운데 최근 금융사업본부, 영업본부, 경영관리본부, 디자론키본부 등 4개 본부장을 교체했다.

구영우 금융사업본부 부사장과 한정우 디자론키본부장은 임기 1년을 앞두고 퇴임한다. 김성식 경영관리본부장과 임정빈 영업본부장은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사를 떠나게 됐다.

반면, 이창주 롯데카드 리스크관리 본부장과 전무급인 최재웅 마케팅본부장, 정동훈 전략본부장 등 3인은 유임됐다.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먼저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최용혁 상무를 중심으로 한 ‘정보보호센터’를 격상해 관리한다. 정보보안 책임자인 최용혁 상무는 이번 인적 쇄신 과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기업문화 정립 및 노사관계를 다루는 ‘ER(Employee Relations)’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신설한다. 고객 중심이라는 큰 기조 아래 대표이사가 직접 정보보호 업무와 기업문화 및 노사 업무를 한꺼번에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기존 7본부 체제를 1부·6본

부 체제로 개편해 조직 효율화를 꾀했다. 개인 고객 대상 사업 영역 3개 본부를 총괄하는 ‘개인고객사업부’도 새로 신설했다. 기능 중심 조직을 고객 중심 사업 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유출 사태 이후 대대적 조직 쇄신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이번 인사 및 조직 개편은 예고된 행보였다. 앞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고객정보유출 사고 이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조직을 기능 중심에서 고객 가치·고객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인적 쇄신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적쇄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대표가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편과 더불어 본인의 퇴임 가능성

도 시사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언론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저와 임원진의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 “사퇴를 포함해 조직적인 인적 쇄신뿐 아니라 조직 변화,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 구조 변화까지 제로베이스에서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까지 본격 진행되면서, 추가 인적쇄신 진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수시검사를 종료하고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 검사를 통해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 전반 실태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대우건설, 원자력 사업단 CEO 직속 편제… 미래동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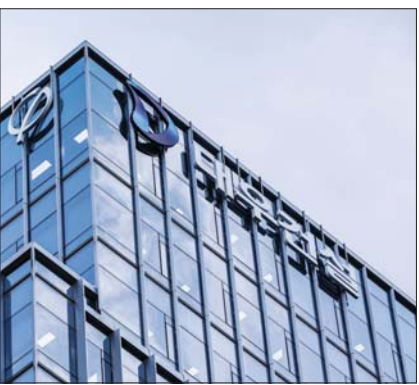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현장점검 전담직원 추가 배치
스마트건설 조직·인력 확대

대우건설이 원자력 사업단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두고, 안전관리 조직도 강화했다.

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례적인 조직개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운동을 통해 내실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변경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코, 모잠비크 현장의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우건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1·2호기 등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사업관

리를 위해 CM조직을 확대 신설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의 주택·건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SOC 및 인프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최고 안전책임자(CSO) 산하에 본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전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된 대우건설은 AI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AX데이터팀을 신설했다. AX데이터팀은 전사 AI 전략 총괄 조직으로 AI 플랫폼 개발, 전사 데이터 자

산화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은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해 임원 인사에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임했다. 특히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40대 젊은 임원이 새롭게 발탁됐으며, 저연차 책임(과장급) 직급의 인재를 AX데이터 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경영지속,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될 원자력 조직 기반강화 및 건설기술 변화를 이끌 스마트건설 조직 확대가 핵심”이라며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글로벌 건설 리더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0@

카드 News

신한카드

코그페 캐시백 이벤트

신한카드는 중소기업부 등 정부 각 부처와 민간이 함께 진행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관련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신한솔(SOL) 페이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30만원 이상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00만원(1명), 10만원(10명), 1만원(100명), 1000원(2025명) 캐시백을 지급한다.

또, 같은 기간 이벤트 응모 후 전국 1만여 개 착한가격업체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2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 신한카드를 처음 등록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3만원 이상 결제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00명에게 1만원을 캐시백 해준다.

KB국민카드

TBX 이용고객 캐시백

KB국민카드는 트럭, 버스 전문 매장인 한국타이어 티비엑스(TBX)와 제휴를 맺고, TBX 이용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겨울철 맞이 차량 정비 및 타이어 교체 시즌에 맞춰 ‘KB 국민 TBX카드’로 매장에서 합산 40만원 이상 이용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 국민 TBX카드 라이트할부 이벤트도 마련됐다.

라이트할부는 30만원 이상 12개월, 18개월, 24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이후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원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하는 할부 서비스다.

/안재선 기자